

일본, 합성수지 특혜수입 저조!

2002년 소화율 61.2%로 15%p 하락 ... 판매가격 저조 영향

일본의 2002년 범용수지 특혜수입은 전체 수입금액 106억5500만엔 중 Ceiling 174억800만엔에 대한 소화율이 61.2%로 매우 저조했다.

특혜수입의 소화율은 2000년 76.9%, 2001년 76.6%로 2년 연속 70%대 후반의 낮은 소화율을 보였는데, 2002년 소화율이 또다시 15%p 하락해 일본의 합성수지 시장은 '채국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다.

일본 재무성에 따르면, 2002년에는 나라별 특혜 수입금액이 모두 감소해 수입총액은 2001년보다 약 23억엔 감소했다.

국가당 수입상한선인 Ceiling의 20%를 넘은 나라는 타이뿐이며 94%에 달한 사우디 등 타이와 사우디를 제외하면 수입이 저조했다. 또 4월에서 시작된 월별 소화율도 매월 약 5%씩 소화하는데 불과해 2002년 특혜수입이 저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특혜수입이 저조한 것은 일본의 합성수지 판매가격이 낮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력력이 없기 때문이다.

일본의 범용수지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

(단위: 100만엔)

국 가	2000년	2001년	2002년
타 이	4,794	3,851	3,754
사우디	3,723	4,371	3,282
말레이시아	2,161	2,488	2,297
중 국	1,131	914	837
필리핀	320	701	248
인디아	758	582	215
인도네시아	113	33	16
브라질	11	6	2
베트남	-	-	5
특혜적용 총수입	13,020	12,946	10,655
Ceiling 범위	16,931	16,900	17,408
소화율(%)	76.9	76.6	61.2

자료) 일본 재무성

특히, 2002년은 원료가격의 고가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국가에서는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합성수지가격도 인상됐으나 일본에서는 디플레 경제 때문에 가격상승폭이 매우 둔했다. 즉, 특혜수입에 따라 국제적인 시장변동과 동떨어진 상황이 된 일본시장의 실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.

일본의 범용수지 수입관세는 현재의 종가세에서 2004년부터 일률적으로 3.5% 종량세로 바뀌게 돼 실질적으로 대폭감세가 이루어지게 된다. 때문에 전체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, 일본시장이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가격결정 기준 등 기존의 상관행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5/28>